

규장각 소장 한글본 『연형일기』 연구

조양원

노비사드 대학교 강사, 고전문학 전공

donquixote22@naver.com

- I. 머리말
 - II. 내용 및 구성
 - III. 한문본과의 비교
 - IV. 규장각본 『연형일기』의 특징
 - V. 필사 시기 추정
 - VI.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896).

I. 머리말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된 『연횡일기』(가람古 915.2-G415g)¹는 1712년(숙종 38) 연행에 타각(打角)으로 참여한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²의 한글본 연행록이다. 현재 김창업의 연행록은 한문본 8종과 한글본 3종이 전하고 있다. 한문본은 규장각 소장본(6책)³, 장서각 소장본(6책)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책본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책본⁶, 일본의 동양문고(東洋文庫)에 소장된 『燕彙』 소재 『가재설총』(6책)과 교토대 가와이(河合)

- 1 책 96장. 규장각 古書目錄에는 『稼齋燕錄』이라고 되어 있다. 표지의 제목은 상당부분 지워져 있으나 『稼齋燕錄』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제는 『연횡일기권지일동행록노가재일기』라 표기되어 있다. 1책 192쪽으로 13-14행, 각 행 26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에서는 가람본이 한문본을 1책으로 대폭 축약한 번역본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주요 기사와 일기의 후반부만 수록된 零本이라 할 수 있다.
- 2 김창업은 본관이 安東, 자는 大有이며, 호는 稼齋 혹은 老稼齋이다. 1681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한양의 東郊松溪와 포천의 永平山에서 은거하였으며, 문장과 회화에 뛰어났다. 문집인 『老稼齋集』이 현전하나 947수의 시만 수록되어 있으며 산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3 9권 6책. 표지에는 『稼齋燕行錄』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내제는 『稼齋燕行日記』라 되어 있다. 1책 171쪽, 2책 107쪽, 3책 145쪽, 4책 96쪽, 5책 90쪽, 6책 131쪽으로 총 740쪽이며, 10행 24자로 구성되어 있다.
- 4 9권 6책. 표지와 내제 모두 『老稼齋燕行日記』라 표기되어 있다. 1책 171쪽, 2책 107쪽, 3책 145쪽, 4책 96쪽, 5책 90쪽, 6책 131쪽으로 총 740쪽이며, 10행 24자로 구성되어 있다.
- 5 6권 6책. 1책이 일실되어 2책부터 6책까지 전한다. 표지와 내제 모두 『燕行日記』라 표기되어 있다. 원본은 동경대 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6책본은 사본이다. 2책 164쪽, 3책 160쪽, 4책 184쪽, 5책 162쪽, 6책 152쪽으로 총 822쪽이며, 9행 20자로 구성되어 있다.
- 6 4권 4책. 표지와 내제 모두 『燕行日記』라 표기되어 있다. 1책 100쪽, 2책 100쪽, 3책 132쪽, 4책 133쪽으로 총 465쪽이며, 12행 32자로 구성되어 있다.

문고에 소장된 『燕彙』 수록본 『가재설총』(5책)⁷, 일본 도쿄대 아가와(阿川)문고 소장본(5책 零本, 1책결), 조선고서간행회 『朝鮮群書大系續編』 제7집 『가재연행록』(연활자본)⁸ 등 8종이다.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은 그 내용이나 체제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책본과 국립중앙도서관 4책본은 모두 규장각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규장각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고전국역총서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의 저본으로 『노가재연행일기』의 정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학계에도 정본을 위시한 여타의 이본과 관련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⁹

한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창순본(任昌淳本, 6책 중, 3책 缺)¹⁰과 규장각 소장 가람본(1책),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본(1

- 7 『燕彙』에 수록된 것으로, 표제는 『燕彙』, 우측하단에 『稼齋錄』이라 적혀있으며, 권수제는 「稼齋說叢」이다. 권차는 나뉘지 않았으며, 규장각본과 대체로 비슷하다. 김창엽의 문집인 『老稼齋集』이 간행될 때 수록되지 못하고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하다가, 일본인 釋尾春菴(토키오 순조, 1875-?)가 설립한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914년 간행된 연활자본 『朝鮮群書大系』 續編의 제7집에 『稼齋燕行錄』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었다.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집(2012), 45쪽.
- 8 박지선(1995)은 조선고서간행회에서 간행한 연활자본은 현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일본의 國立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신효련, 「노가재 『연행일기』 국문본의 이본 고찰: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洌上古典研究』 제49집(2016), 46쪽.
- 9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의 글쓰기 방식: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권(2000);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집(2012); 박지선(1995), 앞의 논문; 윤경희,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金昌集의 燕行墳簾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 19집(2007).
- 10 6권 6책 중 3책이 일실되어 현재 1책, 2책, 4책이 전한다. 표지에 『燕行日記』라 표기되어 있으며, 내제는 『연행일기』라 되어 있다. 1책 145쪽, 2책 134쪽, 4책 133쪽으로 총 412쪽이며, 12-13행 30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1책은 1712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책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권은 1713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기록으로, 한문본과 비교하여 약간의 편차가 있다.

책)¹¹ 등 3종이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글본과 관련한 연구는 순천시립 박물관 소장본에 대한 단독논문 한 편에 불과하며¹², 임창순본과 가람본에 대해서는 학위논문에서 개괄적인 내용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¹³ 따라서 한글본의 정본으로 꼽을 수 있는 임창순본이나 최근에 발견된 순천시립 박물관 소장본은 선행연구를 통해 그 면모를 대략 유추할 수 있으나, 규장각 소장 가람본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한문본과의 차이 및 이본간의 비교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¹⁴

이에 본고는 김창업의 한글본 연행록 중,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규장각 소장 가람본을 저본으로 삼아, 한글로의 번역 양상과 그 자료적 가치를 궁구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김창업의 연행록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한문본과 한글본이 병존(並存)하는 연행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창업의 연행록이 18세기 이후 쏟아지다

11 1책 108쪽. 표지에 『燕行日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내제는 「연행일기 권디십」라 표기되어 있으며, 12행 24-27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1713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일기체 기사가 실려 있고, 75쪽부터 〈동행인〉, 〈세폐방물수년공〉, 〈네단인정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12 신호련(2016), 앞의 논문.

13 박지선(1995), 앞의 논문; 조양원, 『燕行錄 翻譯 樣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14 신호련(2016)의 연구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소장된 김창업의 한글본 『燕行日記』를 고찰하여 그 서지적 특징과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한문본과 임창순본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까닭에, 가람본과의 비교는 물론 언급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지선(1995)의 연구는, 여러 한문본의 이본과 한글본에 대해서도 대략 살펴본 바 있으나, 한글본은 임창순본에만 주된 초점을 맞춰 다른 한글본에 대한 살피는 소홀한 편이다. 특히 가람본은 한문본을 대폭 축약한 축약본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零本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순천시립박물관 소장본이 발굴되지 않았던 까닭에 비교분석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조양원(2016)의 연구는 한글본 3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약이 이루어졌으나 번역양상의 흐름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역시 임창순본에 큰 비중을 두었던 까닭에, 가람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시피 했던 여타 연행록의 모본적(模本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¹⁵ 후대의 문인들이 연행록을 저술하면서 김창업의 그것을 거의 필수적으로 참조했음을 미루어보면¹⁶, 김창업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한문본이든 한글본이든, 또는 영본(零本)이든 아니든, 대략이나마 그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또 한문본과 한글본이 병존하는 까닭에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연구성과도 상당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 김창업 연행록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람본에 천착하여 그 자료적 가치를 궁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문본 『노가재연행일기』(규장각본)과 텍스트를 상호 비교하고, 여타의 한글본과의 대략적인 차이 역시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더구나 김창업의 연행록은 金景善(1788-?)의 『燕轅直指』에서 三家로 언급될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이기도 하다. 金慶善, 〈燕轅直指序〉, 『燕轅直指』.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續密, 朴類夫立傳, 而膽麗閎博. 皆自成一派, 而各擅其長, 繼此而欲紀其行者, 又何以加焉?”

16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166쪽. “文谷 壽恒은 유명한 南人의 領袖로서 그의 賢妻 羅氏와의 사이에는 夢窩와 가튼 政治家와 農巖·三淵·老稼齋가튼 儒冠文人이 많이 낳았다. 더구나 老稼齋 金昌業은 가장 紀行文다운 燕行錄의 權輿가 되어서 많은 中原紀行文字의 模範이 되었다.”

17 예컨대 한문에서 한글로의 번역양상을 살펴보거나, 한자어의 당대 발음을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어의 음운론적 변화나 이미 사멸되어버린 우리말의 원형을 추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내용 및 구성

가람본 『연흥일기』는 규장각 가람문고¹⁸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지만 『稼齋燕錄』이라는 표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지에는 『연흥일기 권지일 동흥록 노가직일기』라는 내제가 적혀있다.¹⁹ 총 1책 190쪽으로, 각 12-14행, 각 행 23-26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²⁰

내지 첫 장의 뒷면²¹에는 행초로 7언 율시 한 수가 앞부분만 적혀 있는데²², 글자 수가 맞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²³, 원래 다음 장까지 적혀 있던 것이 낙장되어 일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지 2쪽에는 「연흥일기 권지일 동흥록 노가직일기」라는 제목과 ‘김익환(金益煥)’의 인장이

18 청구기호: 가람古 915.2-G415g

19 선행연구에서는 표지서명인 『稼齋燕錄』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내제인 『연흥일기』를 따르기로 한다. 규장각에도 원서명은 『연흥일기』로 등록되어 있다.

20 156쪽부터 159쪽까지는 특이하게도 8-9행, 각 행 13-15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21 실제로는 내지 첫 장의 뒷면을 가리킨다. 첫 장의 앞면은 백지로 되어 있어, 첫 장의 뒷면이 1쪽이 된다.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원문서비스(kyudb.snu.ac.kr)는 백지인 첫 장의 앞면은 '001a'로 뒷면은 '001b'로 표기되어 있다.

22 이 시는 김창엽의 문집인 『老稼齋集』은 물론, 연행 당시 지은 시와 수창한 시를 모아 놓은 『노가재집』 권5의 「燕行墳旆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번역은 본고에서 임의로 붙인 것이며, 원본에는 한자로 6구의 ‘第’까지만 씌어 있다.

荳花初落稻花飛 콩꽃 비로소 떨어지고 벼꽃 날리니,
簾幕秋深燕子稀 주렴 장막엔 가을 깊어 제비도 사라졌네.
時節於今半歲去 시절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英雄從古幾人歸 영웅은 예로부터 몇이나 돌아왔던고.
山家夜靜茶煎竈 산촌의 고요한 밤 아궁이엔 차가 끓는데,
第

23 5구까지는 내용상 7언 율시로 보이나, 6구는 ‘第’ 한 글자만 남아 있고 뒷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적혀 있다.²⁴ 이어 4쪽까지는 <동형록>에 사행인원의 인명을 수록하고 <세페방물수>(5쪽)를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후 <왕년총록 서너딧문벗기다>(6쪽)에서는 한문본 <往來總錄>의 후반부 일부와 전반부 일부를 순서를 뒤바꾸어 수록하고 있으며, 7쪽 <피지산천>에는 한문본 <山川風俗總錄>의 전반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0쪽부터 날짜별 일기체 기사가 시작되는데, 10쪽은 1713년 2월 17일 기사의 내용이 중간부터 실려 있으며, 이듬해 3월 30일까지의 일기가 188쪽까지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차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권6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5쪽부터 84쪽까지는 권7 「연형일기 칠권 벌딧문」 벗기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권8이 생략된 상태로, 85쪽부터 권9 「연형일기 권지구 종 노ㄴ직」로 나뉘어 있다.²⁵

필사자는 특정하기 어렵다. 임창순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은 글씨가 미려하고 정서(正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반면, 가람본은 글씨가 거칠고 글자의 크기나 필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람이 번갈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맨 뒷부분이다. 1713년 3월 30일 기사의 마지막 부분인 188쪽에 “북경서 출입흔것과 길회에서 단닌 거시 또 늑빅칠십삼니라 시어든거시 스빅이편이라”라고 일기를 마친 뒤, “임즈 스월 초칠일 당춘서 필서”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필사기는 권말에 저술연대를 적는 것으로

24 金益煥이라는 인물은 장동 김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도서 중에도 김익환의 장서인이 적혀 있는 책들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25 권7에서 2월 18일 기사를 생략하고 2월 23일까지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후 곧바로 3월 1일부터의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3월 4일 기사 이후에는 권8을 생략하고 곧바로 권9에서 3월 5일부터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권차를 나눈 체제는 한문본 『노가재연행일기』는 물론 여타의 한글본(임창순본, 순천시립박물관본)과도 차이를 보인다. 한문본과 한글본 3종의 권차를 비교한 것은 선행연구(조양원(2016), 앞의 논문)의 표4에 잘 정리되어 있다.

번역이나 필사를 마쳤다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가람본 『연형일기』에는 다음 장인 189쪽과 190쪽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수록되고 “임궞 초하 념오일 당촌 상방 후창하의서 종서”라는 필사기를 한 번 더 적어놓았다. 더구나 말미에 실려 있는 내용은 연행록이 아닌, ‘구귀주’와 관련한 야담과 ‘구귀주’를 담가 복용하는 방법 및 효능에 대한 서술이다.²⁶

김창업의 다른 한글본 연행록 중, 임창순본은 권1, 권2, 권4이, 순천시립 박물관본은 권10만 전하고 있는데, 가람본은 이 두 본과 권차에 차이를 보인다. 임창순본은 권1에 1712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권2에 17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권4에 1713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순천시립박물관본은 권10에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3종의 한글본 중, 가장 많은 분량이 전하는 것은 임창순본으로, 내용이 간혹 생략되거나 축약된 부분이 있으나 한문본의 내용을 대부분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으며²⁷, 장동김씨 일문의 가장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순천시립박물관본은 1713년

26 야담으로 추정되는 ‘구귀주’ 관련한 내용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7 임창순본은 2책 말미의 12월 17일 기사에 “칠대조 이 칙이 노가지겨서 지으신 칙이니 허슈이 굴니지 말나 정미년 날니의 혼 권을 일코 뉘게 맞겨더니 간슈를 줄뭇호여 두 권을 쉼가 쓰라시니 앓갑다”는 필사기가 있어 6권 6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부터 6권 6책 전질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6권 6책이라면, 권5와 권6에 1713년 1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기사가 모두 수록되어야 할 것이나, 분량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신효련(2016), 앞의 논문; 조양원(2016), 앞의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원래 9권 내지는 10권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8 임창순본의 1책과 4책 표지의 背面에 필사기가 적혀 있는데, “此冊非一覽而棄者幸勿傷汚”과 “이 칙을 혼변 보고 뉘릴 거시 아니 ” 부딪 상히오디 마음”이라는 기록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또 2책 말미의 12월 17일조에는 “칠대조 이 칙이 노가지겨서 지으신 칙이니 허슈이 굴니지 말나 정미년 날니의 혼 권을 일코 뉘게 맞겨더니

3월 8일조부터 3월 30일까지만 남아 있으나 한문본의 내용이 대략 온전히 실려 있으며, 생략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고려하면 한문본과 임창순본을 참조한 필사본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⁹

한편 본고의 대본(臺本)인 가람본은 한문본에 비해 생략되거나 축약된 내용이 심하고, 그 번역양상을 대략 살펴볼 때, 장동 김문의 가장본인 임창순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생략된 부분이 임창순본이나 순천시립박물관본보다 많으며, 축약되는 양상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다.³⁰ 한문본과 3종의 한글본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산천풍속총록(山川風俗總錄)>의 경우, 임창순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은 그 내용이 한문본과 대동소이 하지만, 가람본의 경우 <산천풍속총록>의 도입부만을 일부 수록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³¹ 이러한 생략 및 축약의 양상은 일기의 내용에서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임창순본은 한문본을 올곧이 한글로 번역한 한글본의 정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순천시립박물관본은 한문본과 임창순본을 참조한 필사본, 가람본은 다른 한글본을 참조하여 생략과 축약의 과정을 거친 필사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간슈를 잘못하여 두 권을 쥐가 쏘라시니 앓갑다”라 쓰여 있다. 이러한 기록은 김창업의 7대손인 金明圭(1848-?)가 후대에 추가한 글귀로 추정된다.

29 조양원(2016), 앞의 논문, 46쪽 참조.

30 권7 「연형일기 칠권 벌딴문」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1713년 2월 22일 기사가 시작되는데, 권8로 권차를 나눈 부분 없이 곧바로 3월 5일 기사부터 권9 「연형일기 권지구종 노그직」이 시작된다. 또한 2월 17일 기사 이후에는 2월 18일 기사를 생략하였고, 2월 19일 기사에는 한문본의 2월 19일부터 2월 21일에 해당하는 기사를 축약하여 실고 있다. 게다가 2월 23일 기사 이후에는 곧바로 3월 1일 기사로 넘어가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31 조양원(2016), 앞의 논문, 47쪽, 표5 참조.

Ⅲ. 한문본과의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람본은 다른 한글본에 비해 생략과 축약이 많은 편이다. 물론 한글본의 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임창순본과는 현전하는 권차가 다르고 낱짜가 중복되는 일기가 없어 그 내용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문본을 토대로 번역된 양상을 살펴보면 임창순본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³² 특히 임창순본은 남아 있는 3책의 내용은 한문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한문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김창업의 자작시가 모두 24편이나 수록되어 있으나³³, 가람본에는 한문본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시가 생략되어 있다.

한글본 3종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산천풍속총록>과 같은 경우, 가람본은 <피지산천>이라는 제목으로 <산천풍속총록>의 도입부만을 수록하고 있다. 임창순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에는 구체적으로 이국의 문물을 언급한 부분이 매우 다채롭고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반면, 가람본은 도입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략의 빈도는 일기체 기사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가람본의 번역 과정에서 생략 및 축약의 양상을 대략 한문본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³⁴

32 조양원(2016), 앞의 논문, 3장 1절 참조.

33 이 24편의 시들은 김창업의 문집인 『老稼齋集』 권5의 「燕行墳簾錄」에 수록되어 있다. 김창업의 문집인 『老稼齋集』은 自編한 詩錄草稿를 바탕으로 편차되었기에,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시문이 임창순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김창업이 직접 지은 手稿本일 가능성이 크다.

34 '한문본'은 현전하는 여러 이본들 중 선본으로 꼽히는 규장각 소장 한문본을 가리킨다(이하 같음).

표1-가람본 『연행일기』의 수록 양상

쪽	날짜	내용 및 수록 양상	비고
2-10		〈동행록〉(2-5), 〈세페방물수〉(6), 〈왕녀충록〉(7-8), 〈피자산천〉(8-10). 한문본의 〈禮單人情都合數〉, 〈入京下程〉,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儀〉, 〈賁回物目〉, 〈上馬宴〉 등은 모두 생략되었으며, 〈方物歲幣式〉도 ‘年貢禮物’과 ‘冬至禮物’의 일부만 실려 있고, 실제 수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³⁵	생략
11	1713년 2월 17일	1713년 2월 17일 기사의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삽입시키지만 수록.	생략
12	2월 19일	2월 18일 기사 생략.	생략
13	2월 20일	날짜 표기 없이, 곧바로 2월 20일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 삽입. 13쪽 마지막 행, ‘셔과’에 대한 주석【슈박】삽입. 상세묘사 일부 추가. “올제 자던 집의 드니 주인이 또 주찬을 너여 디 접히디 농안 너지 대초 셔과【슈박】지 등정 강사 제육 두시 조니어 하 치니 조니어는 닝여를 술직검이에 녀허 담은 거시라 우리나라 식허갓 트디 무이 썸니 법반찬으로 먹기 7장 도터라”	생략 및 추가
14	2월 21일	날짜 표기 없이, 곧바로 2월 21일에 해당하는 기사내용 삽입.	생략
15	”	수양산 인근의 강가의 풍광을 언급하고, 고기잡[魚巢]을 보고 『爾雅』와 杜詩를 언급하고 고기 잡는 법을 설명하는 부분 생략.	생략
16	2월 22일	「연행일기 칠권 벌디문」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2월 22일 기사 시작. 한문본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기사가 『연행일기』 제7권으로 묶여 있고, 2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사는 제8권에 속함.	생략
20-29	2월 23일	대략 한문본의 내용과 같음.	생략
29	3월 1일	‘계스 삼월초 일’ 날짜 표기 후 해당 내용 시작.	생략
51-52	”	관음각의 승려와 수작한 내용이 한문본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됨. “암 주의 잇는 화상의 법호를 각” 써 보다 중형이 혼 동으로 허여곰 쓰 이되 춘형의 성이 남이오 흥옥은 성이 김이오 흥오는 성이 왕이오 흥관은 성이 진이라하니 이 세사람은 다중형의 데조라 허더라”는 등의 한문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임창순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에는 해당 날짜의 기사가 없어 확인 불가).	추가
52	3월 2일	날짜 표기 없이, 3월 2일 기사내용 삽입.	생략
53	”	한문본은 물론 『노가재집』 권5 「연행훈지록」에도 수록되지 않은 한시 삽입.	추가

35 〈연공예물〉 중 生木綿의 수량이 한문본은 2,800필이지만, 한글본은 ‘싱목면 일천팔 퍽필’로 차이가 있고, 〈동지예물〉의 黃花席도 한문본은 20장이라 적혀 있지만, 한글본은 ‘황하석 십오장’이라 적혀 있는 등, 수량의 차이가 간혹 보인다. 또한 〈방물세

71	"	3월 2일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話素의 수록순서가 한문본과 다름. 북경의 식수 문제와 장 담그는 법에 대한 문답 생략. 소흑산에 도착하여 경험한 내용의 수록순서가 다름.	생략
79-80	3월 3일	화소의 수록순서 바뀜. 한문본은 선흥에게 분부하여 행장을 꾸리게 한 내용, 노자 환전한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여정에 관한 언급과 서장관과 의논한 내용이 나오나, 한글본은 이 두 화소가 거꾸로 수록되어 있음.	
85	3월 4일	한문본의 3월 4일 기사의 마지막 내용이 한글본과 순서가 바뀜. 周流河店에서 겪은 일화의 전후의 내용.	
86	3월 5일	「연희일기 권지구종 노가지」라는 제목으로 3월 5일 기사 시작(한문본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9권으로 편차되어 있음).	
87	"	한문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고 화소의 수록 순서 바뀜. 삽입시 2수 전후의 내용.	추가
104	3월 6일	한문본과 달리 표현된 부분(행위의 주체)과 이동거리를 추가로 기록함 (<u>이날 십오리를 행하니라</u>). 한문본 “나는 작은 사미승에게 불경을 외게 하고(余使小沙彌念經曰)” / 한글본 “명보로 하여금 경을 읊으라 하고”	추가
112	3월 7일	한문본 ‘郭舍眞’으로 표기된 이름이, 한글본에는 ‘곽한진’으로 표기. 한글본 ‘성명은 곽한진이오 나흔 스십삼세를 살고 강희 스십칠년 초 팔일의 우화하니라’(월 표기 생략됨. 5월)	
117	"	한문본의 삽입시(2수) 생략. 한글본 “그 우히 작은 집이 * 시니 이 집 일홈은 나한연이라 불연의셔 나한연 상계 빅여보논 하니 풍슈로 의논하여도 또한 극히 긴노하더라 불연셔 편벽 바긔 쓰글이 만하니 다 근인의 지은거시라 그 동의 칠언놀이 훈슈와 오언놀이 훈슈 려기 보암 족하더라(한문본의 삽입시 2수 생략) 도로 정진의 반의 도라오니 저녁밥을 나오되 다 엇업시치기다 정하고 그 동의 흔흔 버셔시 이시되 마시 이룸답거늘 무르니 느릅날 버셔시라하더라”	생략
120	3월 8일	묘사의 차이. 한문본 “또 불전 서벽의 韻 자를 써서 두 수를 지어 精進 스님에게 주었다.”(又次殿西壁上韻作二首, 書贈精進.) 한글본 “또 서편 바롬벽 우히 운을 초하야 <u>오언놀이</u> 두 슈를 써 정진을 주니 시월”	차이
121	"	한문본과 한글본의 서술 순서가 약간 상이하고, 생략된 부분도 산견됨 한글본 “(소향하러 온 사람과의 문답 생략) 정진이 또 다과를 드리고 선흥이 또 쓸힌법을 나오니 하늘이 비로소 붉더라 후박지 훈권 별선	생략

폐식〉중, ‘正朝禮物’, ‘聖節禮物’, ‘謝恩四起禮物’, ‘免其查議禮物’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훈조로 연둑 하나를 정진을 주니 정진이 굴병 열아문을 선히를 주어 형탁의 녀흐라 허더라”	
123	”	한문본의 『일통지』 인용 문구 생략. 『一統志』에 이른바, “용천사 方丈 앞에는 병풍 같은 큰 돌이 있는데 소나무가 힘차게 뻗어 있고 돌부리가 기묘하게 빼어나 있어 볼 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곳을 가리켜 한 말인 것 같다.(一統志 所云: ‘龍泉寺方丈前, 有大石如屏, 松迸石叢出, 奇秀可觀者.’ 恐指此而 言也.)	생략
133- 134	”	한문본의 大安寺에서의 일화 일부와 삽입시 생략.	생략
146	3월 9일	한문본의 일화 및 일부 내용 생략. 한문본 일기의 마지막 부분 중, 한문본 “연산관의 인심은 특히 나빴다. 金德三이 묵은 집에서는 노인과 아이가 방값을 다투다가 칼을 빼어 목 을 찌르는 참상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連山關人心特惡. 金德三所宿 家, 有老兒爭房錢, 至拔刀爲刎劉之狀云.). 한글본에서는 이를 생략하 고, 노잣돈과 관련한 간단한 언급으로 대신함.	생략
151	3월 10일	한문본 3월 9일 기사의 마지막 부분(김덕삼)에 해당하는 내용이, 3월 10일 일기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있음. “년삼관 인심이 사으납기 특심하니 지난 밤 김덕삼의 자던 집주인 오 랑키 방전을 다도아 칼을 싸혀 제역을 지르라하니 김덕삼이 슈다허더라”	추가
152	3월 11일	한문본과 화소의 수록 순서가 약간 다름. “밤의 바람이 새도록 부니라 슈역 상통스 향동당위 문저 봉성으로 가 니 성당이하를 네사회뢰호는거시 이시미 미리 가주라흐미라” 한문본에는 일기의 초반부에 적혀 있으나, 한글본은 후반부에 기록되 어 있음.	차이
155	3월 12일	한문본과 한글본의 묘사에 차이가 있고, 화소의 수록 순서가 다름. 한문본 “전임 의주 부윤이 소주, 쌀, 醬, 魚肉 등의 물건을 주인집으로 들여보냈다. <u>객당이 높고 컸으나</u> ,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아 춥고 을 씨년스러워 밤을 지낼 수가 없었다. 나는 서편 廊屋으로 옮겨 들어가 막 촛불을 끄고 누웠다.”(舊灣尹以燒酒米醬魚肉等物入送. 主家客堂高 大, 而窓戶無紙冷落, 不堪經夜. 余移入西邊廊屋, 方滅燭而臥.) 한글본 “구만윤이 쇼주와 쌀과 당과 싱선과 고기를 드려보내고 임선 희 쏘흔 칩문 ^ㅅ 지 온다하고 부어를 잡아 보녀엇더라 <u>빅시 드르신 집</u> <u>이 주인</u> 의 <u>직당이라 높고 너르고</u> 창호의 도희 업스니 녁낙하야 밤 지 니기 어려운디라 나는 서편 월양집의셔 자니라	추가
156	”	화소의 수록 순서가 한문본과 다름. 한글본 “역노 막산의 형이 주인(오랑키) 종의게 빗진거시 잇더라하 고…….”	

157-160	3월 13일	필체는 엷비슷하나, 글자의 크기와 행간의 간격이 눈에 띄게 달라짐. 보통 12-13행 23-25자로 필사되던 형태가 156쪽부터 159쪽까지는 8-9행 13-15자로 큰 차이를 보임	필체
160	"	호칭과 묘사에 차이. 한문본 “堂弟 仲翊” / 한글본 “당데 감찰” 한문본 “淸學 上通事 金世泓이 모친의 하음을 듣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떠났으니 슬픈 일이었다.”(淸學上通事金世泓, 聞其母訃, 其子扶護出去, 慘然也.) 한글본 “상통스 김세홍이 팔십 노모 잇더니 그 부음을 드르니 참연히더라”	
165	3월 15일	한글본에는 날씨의 상세함이 추가됨. 한문본 “15일. 임진. 맑음. 義州에 머물러 있었다.”(十五日. 壬辰. 晴, 留義州.) 한글본 “십오일 임진의 청명하고 덥고 미풍이 브다 의췌뉴흐다”	추가
166	"	묘사의 상세함 차이. 한문본 “정자 아래에서 그물을 던쳐 누치[重脣], 餘項魚 수십 마리를 잡았는데 큰 것은 한 자가 넘었다. 將官, 妓生을 모래사장으로 보내 말을 달려 깃발을 뽑는 놀이를 하였다.”(投網亭下, 得重脣餘項魚數十尾, 大者尺餘. 送將官妓生于沙邊, 馳馬拔旗.) 한글본 “정조 아리 그물을 드리쳐 큰 고기 넷과 적은 고기 열아문을 잡아니고 장관 팔구인과 기청 다스슬 강변의 보니여 말달니고 괴를 췌히니라”	추가
169	3월 18일	기사 내용 중에 언급된 날짜(아들의 편지 발신일) 표기 오기. 세부내용이 생략되고 대신 작은 글씨로 ‘낙자’라는 주석 표기. 한문본 “파발 편에 신(아들 金信)이 13일에 띄운 편지를 보았는데, 부사 張鵬翼이 파면되어 가고 李汝迪이 대신 왔다 하더라.”(撥便見信兒十三日書, 府使張鵬翼罷去, 李汝迪來代云.) 한글본 “신오의 삼월 삼십일【낙즈】 부스 당봉익이 파직하여 가고 새 부스 니여적이 궂 도임하였더라” (순천시립박물관본에는 “부스 당봉익이 파직하여 가고 새 부스 니여적이 궂 도임하였더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음)	오기 및 생략
169-170	"	雲興館에서 점심을 먹을 때 있었던 일화가 한문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한글본에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음. 송일화와 유봉산(柳鳳山)이 수청기생을 독차지하는 일로 죄를 물으며 수작하는 일로 일행들이 모두 웃었다는 내용(순천시립박물관본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추가
171	3월 19일	한글본에는 구체적인 지명(鐵釜山城) 표기. 한문본 “백씨가 명일 寧邊으로 가려고 하니 李鳳祥은 물러나와 먼저 돌아갔다.”(伯氏明日將向寧邊, 李鳳祥辭而先歸.) 한글본 “백씨 명일 철웅산성을 보라하여 념변을 가시논디라 니봉상이	

		“날 문저 그 고을노 가니라”	
172	3월 20일	호칭에 대한 당대의 발음을 그대로 음차하여 표기. 호칭: 한문본 ‘茶母’, 한글본 ‘차모’ / 한문본 ‘서원나리[書員進賜]’, 한글본 ‘서원나오리’(한자어 호칭에 대한 당시 발음확인)	
174	”	한글본에 구체적 지명 차이. 한문본 “또 20리를 가니 큰 냇물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흘러내려왔다. 이 물의 근원은 理山郡 경계에서 시작하여 淸川江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다.”(又行二十里, 有大川自北而來, 此水源於理山郡境, 流入淸川江者.) 한글본 “또 이십여리를 행하야 큰 니히 이시니 이 니는 은산 창성 두 고을 싸흘서 느러오는 물이니 텅천강으로 든다 허더라”	차이
175	”	묘사의 차이(잠시 쉰 것과 누군가와 차담을 나눈 차이). 한문본 “천주사에 도착하여 잠시 쉰 후 東臺로 올라갔다.”(至天柱寺少憩, 登東臺) 한글본 “턴주스의 니르러 차담 후 동덕로 올라가니”	차이
175-176	”	비를 세운 해의 간지를 오기. 한문본 “정자 옆에는 성을 쌓은 내력을 적은 비석이 있었는데, 재상 柳尙運이 지은 것으로 갑오년에 세운 것이었다.”(亭傍有一碑, 記築城始末, 文是柳尙運所撰, 而立于甲午年矣.) 한글본 “바회 동편의 비를 세우고 성꾼 시말을 기록하야시니 뉴상 운의 글이라 갑오년의 세웠더라”	오기
176	3월 21일	날짜표기 오기. 한문본 “21일. 무술. 맑음. 저녁 늦게는 바람이 크게 불었다. 寧邊을 출발하여 50리를 가서 安州에 도착하여 잤다.”(二十一日. 戊戌. 晴. 晚後大風. 自寧邊行五十里, 至安州宿.) 한글본 “이십일 무술의 청하고 대풍하다 냉변서 오십니를 행하야 안 쥬 가 자다”	오기
176	”	철옹성 내부를 구경하며 성을 묘사하는 부분 중, 한글본에만 추가된 부분. 한글본 “이 성이 험하나 길히 틈니 피란홀 곳이오 도적 막을 곳은 아 니더라”	추가
176	”	한문본에서 藥山の 경치와 鐵瓮舊城을 묘사한 부분, 『東國輿地勝覽』에서 藥山城 관련 내용을 인용한 부분, 李适의 반란에 대한 언급한 부분, 東軒의 현판 등과 관련한 내용 생략.	생략
176-177	”	지명의 당대 발음(고유명사) 표기. 한문본 “남문을 따라 나와 큰 냇물을 건너고 험한 고개를 넘었으니, 이름이 水嶼이라 하였다. 府에서 이곳까지는 15리요, 또 25리를 갔더니 峽[鵲峴]라고 부르는 고개가 있었다.”(從南門出, 渡一大川, 踰一峻岡, 岡名水嶼. 自府至此十五里. 又行二十五里, 有一岡, 名鵲峴.) 한글본 “남문으로나 큰 니흘 건너 혼 좁흔 고기를 넘으니 이 고기 일	

		흙은 물고기와 냉변서 예 오기 아십오리라 아십오리를 항하야 또 한 고기를 넘으니 일흙을 갖치고리라 하더라”	
177	”	3월 21일 기사 마지막에 한문본에 없는 내용 추가. 한문본 “이날 밤은 서헌에서 잤다.”(是夜, 宿西軒.) 한글본 “서헌의서 자니 이날 항하거시 대외 칠십니” 냉변서 안쥬 녹 십니오 털옹구성 왕반이 또 십여리라 부스는 문져 평양으로 가다하더라”	추가
178	3월 22일	호칭의 차이. 한문본에는 수하 숙부[壽河叔]라 기록됐으나, 한글본에는 이름만 적혀 있음. 한문본 “壽河 숙부가 따라왔다가 이곳에 와서 떨어져 돌아가 버렸 다.”(壽河叔隨來, 至此落還.) 한글본 “쇼해 가산서 쌀아 네까지 왔다가 써러지니라”	차이
180	3월 23일	한문본의 내용(기자묘 묘사) 부분 생략. 한문본 “평양에 이르러 箕子墓에 들러 배알하였다. 옛 비석은 임진년 兵火에 부서지고 반쪽만 남아 있어 새 비석의 뒤에다 붙여 쇠못으로 박아 놓았다. 산맥은 동쪽에서 뻗어 나오다가 산머리를 틀어 남향을 이루고 있어 혈법(穴法)이 매우 신기하였다.”(仍隨至平壤, 歷謁箕子墓. 舊碑拆於壬辰兵火, 只餘其半, 附於新碑後, 以鐵釘釘之. 龍脈自卯來, 翻身作午向, 穴法殊怪異.) 한글본 “평양니르러 기조묘의 드러벌시 스리네를 항하니라”	생략
180- 181	”	한글본의 묘사가 더 상세함. ‘강희맹’을 ‘오희맹’으로 오기. 한문본 “정자각(丁字閣) 위에는 倪謙, 龔用卿, 姜希孟 세 천사(天使)의 시가 있었다.”(丁字閣上有倪謙, 龔用卿, 姜希孟三天使詩.) 한글본 “덩조각 우히 예겸, 공용경, 오희맹 세 텃스의 시 잇고 분묘는 마침형상이오 스면의 담을 둘내썩고 분묘 압히 두어자 저른비를 세우 고 기조묘 세조를 써시니 한호의 글시라 밋비는 남진년 병화의 부러 지고 다만 아리로 반이 남아시니 새 비 뒤히 세우고 쇠모술 박았더라”	추가 및 오기
183	3월 24일	裁松亭에 대한 묘사 추가. 한문본 “다시 강 연변을 따라 裁松亭 위 언덕에 이르렀다. 드디어 비 를 맞으며 中和에 도착하였다. 백씨는 生陽館으로 들어갔고 나는 鄉廳 에서 잤다.”(復沿流至裁松亭上崖. 遂冒雨, 至中和. 伯氏入生陽館, 余宿 鄉廳.) 한글본 “도로 누려 조송명의 비를 다히고 오르니 성윤과 기강들이 예 서 써러지니라 비를 머슴쓰고 동해닐러 박시는 상양관의 드르시고 나 는 향청의 나 자니라”	추가
183	3월 25일	성명 오기. 한문본 “伺候廳에서 수령들을 상견하였는데, 平安兵使 尹翹, 安岳都守	오기

		<p>白時耆, 金郊察訪 韓在堦가 앉아 있었다.”(伺候廳, 平安兵使尹愨, 安岳郡守白時耆, 金郊察訪韓在堦在座.)</p> <p>한글본 “스후청의 가보니 평안병소 윤각과 안악군수 박시규와 금교찰방 한희자의 있더라”</p>	
184	”	<p>월파루에 대한 묘사 생략.</p> <p>한문본 “나는 먼저 출발하여 月波樓로 올라갔더니, 백씨도 따라왔다. 월파루는 東城 위에 있었는데, 긴 냇물과 넓은 들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좋은 곳이었다. 친구인 李徵夏 季祥이 일찍이 이것을 練光亭에다 비교하였는데, 그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누 아래는 절벽인데 ‘黃岡赤壁’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놓았다. 그 글자는 크기는 손바닥만 한 것으로 중국 사신 朱之蕃이 쓴 글이었다.”(先行登月波樓, 伯氏亦追來. 樓在東城上, 長川廣野, 不無眺望之勝. 李友徵夏季祥, 嘗比之於練光亭. 可笑. 樓下絕壁, 刻黃岡赤壁四字, 字大如掌, 天使朱之蕃書也.)</p> <p>한글본 “문저 형하야 월파루를 보니 박시는 피조차와 계시더라 브람이 만흔디라 잠깐 안갯다가 족시 형하니라 누 아리 절벽의 주지번의 글시 이시니 황강적벽 네조를 삭여시디 글지크기 손바닥만 하더라”</p>	생략
187	3월 28일	<p>‘백씨를 배행하는 하인[伯氏陪下人]’을 ‘박시비【외시논 하인】’라 주석 표기.</p> <p>한문본 “松都에 도착하여 太平館으로 들어가 비로소 彥, 信 두 아이들과 백씨를 뵈었다. 배행해 온 하인들이 모두 와서 맞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많이 왔는데 그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至松都入太平館, 始與彥信兩兒相見. 伯氏陪下人, 盡數來迎, 他相識人亦多來, 不能盡記.)</p> <p>한글본 “송도 니르러 대평관 드니 비로소 언신 냇이 니르러 보니라 박시비【외시논 하인】 하인이 다 왔고 아는 사람 오니 만흐니 기록지 못 흘너라”</p>	주석
189	3월 30일	<p>마지막에 연행 여정을 총괄 정리하며, 노중에서 유숙한 것이 46일이라는 내용 추가.</p> <p>한문본 “연경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5개월로 모두 146일이 걸렸고, 갔다 온 거리는 합하여 6,028리였다. 연경(燕京)에서 출입한 것과 길에서 돌아다닌 것이 또한 675리나 되었고, 얻은 시문(詩文)은 402편이었다.”(往返五朔, 共一百四十六日, 去來路程, 共六千二十八里, 在燕京出入及在道迂行者, 又六百七十五里, 得詩四百二篇.)</p> <p>한글본 “왕반 다섯 둘이 물웃 일씩 스십륙일이니 노동 뉴관이 스십륙일이오 길회거러 통하야 늑천이십팔니오 북경셔 출입한 것과 길회에 서 단닌 거시 또 늑박칠십삼니라 시 어든거시 스박이편이라 임주 스월 초칠일 당촌셔 필셔”</p>	추가
190-191		<p>『연행일기』가 아닌 다른 내용(야담)이 삽입.</p> <p>“임주 초하 념오일 당촌 상방 후창하의셔 종셔”</p>	

표1의 내용 중 간혹 한문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문본에는 없으나 임창순본에는 수록되었을 내용을 필사한 까닭에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김창업은 독자층에 따라 한문본과 한글본의 화소를 나누어 수록했기 때문에 한문본과 한글본(임창순본)의 수록 화소에 차이가 있으며³⁶, 임창순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람본의 경우에도 한문본에는 없는 내용이 조금씩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문본과 비교할 때 대략적인 내용은 대부분 번역이 됐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생략과 축약, 혹은 추가 등의 한문본과 상이한 번역 양상이 나타난다. 보통 한글본 연행록은 한문본에서 비해 생략과 축약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문본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는 편액이나 그림, 서체 등에 대한 품평 등이 대부분 생략되고, 삽입된 한시는 물론 작시(作詩)의 배경이나 시의 풍격, 사조(詞藻) 등을 평술한 내용 등도 거의 생략된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포폄(褒貶), 전거(典據)를 인용하여 의논(議論)을 펼쳐낸 부분을 포함하여, 각종 문헌 및 사서(史書)를 인용하여 역사 정보와 사적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상주문(上奏文)이나 장계(狀啓)와 같은 공식문서 역시 한글본에서는 간략하게 약술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⁷

이러한 한글본 연행록의 특징은 가람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왕늬충녹>이나 <피지산천>과 같은 도입부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한글본인 임창순본에 비해서도 그 생략과 축약의 양상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 권차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권8을 빠트리거나³⁸, 2월 17일조 이후에는 2월 18일조를 생략하였고, 2월 19일조에는 한문본의 2월 19일부

36 이와 관련해서는 조양원의 논문(2016) 3장 1절을 참고하라.

37 조양원, 「김직연의 연행기록 『燕槎日錄』·『연행록』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권 1호(2012), 251쪽 참조.

38 필사과정에서 권차에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터 2월 21일까지의 기사를 축약하여 함께 수록하고 있는 등, 생략과 내용의 축약이 여타 한글 연행록에 비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IV. 규장각본 『연형일기』의 특징

규장각 소장 가람본 『연형일기』는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의 한글본 2종은 물론, 여타의 한글본 연행록과도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대개 한글본 연행록은 한문본에 비해 주석이나 부연설명이 덧붙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어려운 전문용어나 개념, 직위와 예법 등에 대해서는 한글본의 독자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이나 주석을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통해 외국어의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거나⁴⁰, 육성을 통해 직접 묘사하는 듯한 생동감을 전달해주기도 한다.⁴¹

39 본고에서는 가람본의 내용을 한문본(규장각본)과의 비교에 치중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다른 한글본과의 세부적인 비교분석 또한 절실하다. 순천시립박물관본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신효련(2016), 앞의 논문)에서 대략 이루어졌으나, 가람본과의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순천시립박물관본과 가람본과의 세부적인 내용과약과 비교를 통해 추후 별도의 논문을 작성하여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40 『熱河日記』의 한글본인 『熱河記』의 경우에도, 한문본인 『열하일기』에는 “소인 도이노음이요(小人擣伊鹵音爾ㄴ)”. (…)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를 ‘도이(擣伊)’라 하니, 이는 대개 ‘도이(島夷)’의 준말이요, ‘노음(鹵音)’은 낮고 천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요, ‘이요(爾ㄴ)’란 높은 어른에게 여쭙는 말이다(‘小人擣伊鹵音爾ㄴ’ (….) 我國方言, 稱胡虜戎狄曰‘擣伊’, 盖‘島夷’之訛也. ‘鹵音’者, 卑賤之稱, ‘爾ㄴ’者, 告於尊長之語訓也.)”라고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한글본인 『열하일기』에는 “소인 되놈이오 (….) 되놈은 아국방언(我國方言)의 호인(胡人)을 일컫는 말이니”라고 쉽고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다.

41 한글본 연행록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정하여 구분 짓기는 어렵다. 번역자에 따라

가람본 역시 한글본 연행록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와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낮은 빈도의 주석삽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한글본 연행록은 한문본에 비해 상세한 부연설명을 덧붙이거나, 전문용어 등에 대한 주석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그러나 가람본 『연행일기』는 통상적인 한글본 연행록과는 반대로 주석 삽입의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람본에는 총 190쪽의 분량 중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주석이 삽입된 경우는 겨우 세 번에 불과하다. 12쪽의 1713년 2월 20일 기사에 ‘셔과’에 대해 ‘슈박’이라는 주석이 삽입되어 있고, 168쪽 1713년 3월 18일 기사에는 ‘삼월 삼십일’이라는 날짜 아래에 ‘낙조’라는 주석이, 186쪽 1713년 3월 28일 기사에는 ‘빅시빅’ 아래 ‘피시논하인’이라는 주석이 삽입되어 있다. 더구나 ‘낙조’라는 주석이 낙자(落字)를 의미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면⁴²,

또 그 번역 태도에 따라, 한문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문본에 매우 충실한 번역인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독자층을 배려하여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이루어진다는 점, 한문본에 비해 생략된 내용이 많다는 점, 외국어 발음의 표기나 묘사에 생동감이 전해지는 점 등은 한글본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조양원 (2012), 앞의 논문 참조).

- 42 ‘낙조’는 落字를 의미한다. 한문본에는 “파발 편에 信[아들 金信]이 13일에 띄운 편지를 보았는데, 부사 張鵬翼이 파면되어 가고 李汝迪이 대신 왔다 하더라(撥便見 信兒十三日書, 府使張鵬翼罷去, 李汝迪來代云.)”고 되어 있으나, 한글본에는 “신〰의 삼월 삼십일 【낙조】 부스 당봉익이 파직하야 가고 새 부스 니여적이 〰 도입혔더라”라고만 적혀 있다. 곧 ‘파발 편에 부쳐온 편지에 의하면’ 정도의 글귀가 써여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내용 대신 ‘낙조’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참고로 순천시립박물관본에는 아들이나 날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부스 당봉익이 파직하야 가고 새 부스 니여적이 〰 도입혔더라”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실제 삽입된 주석은 겨우 두 번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셔과’⁴³는 한글본 독자들에게 낯선 용어인 까닭에 ‘슈박’이라는 설명을 추가한 것이며, ‘빅시빅’에 붙은 ‘피시논하인’⁴⁴은 당시 송도(松都)에 도착한 이후인 까닭에, 연행 도중 백씨(伯氏)를 배행하던 하인이 아닌, 집에서 원래 부리던 하인들이 맞이하러 왔음을 나타낸 것이다. 즉 독자가 의구심이 생길만한 곳에만 특별히 주석을 삽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표지의 배면이나 여백에도 부연설명이나 주석과 비슷한 용도로 추가한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노가재연행일기』의 한글본 중 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임창순본은, 한글본 독자층을 위한 주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우선 목차에서부터 날짜의 하단에 유숙한 장소와 지명 등을 소자쌍행으로 덧붙이고 있으며, 〈동행록〉의 인명 하단에도 ‘절통 김창넙’이라는 인명 하단에 ‘네방전냥츄디’라는 직책이 부기되어 있으며, ‘선전관 노흠’에는 ‘셔장드려간 군관’, ‘별만상 최슈창’에는 ‘일명은 슈성이라’는 등의 주석이 추가되어 있다.⁴⁵

43 한문본에는 주석 없이 ‘西瓜子’라고만 되어 있다. “올 때에 들렀던 집으로 들어가니 주인이 또 酒饌을 내왔다. 龍眼, 荔枝, 대추, 西瓜子, 橙丁, 薑沙, 제육, 熟豆豉, 糟鯉魚, 蝦菜 등인데, 그중에 조잉어가 가장 맛이 좋았으니, 잉어에 술찌꺼기[酒糟]를 섞어 담근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식혜[食醢]와 같은 것이다(入來時所宿主人, 又出酒饌龍眼, 荔枝, 大棗, 西瓜子, 橙丁, 薑沙, 猪肉, 熟豆豉, 糟鯉魚, 蝦菜, 其糟鯉魚, 味最佳, 以鯉魚和酒糟淹成, 如我國食醢.)”

“올제 자던 집의 드니 주인이 또 주찬을 너여 디접히디 농안 녀지 대초 셔과【슈박】지 등정 강사 제육 두시 조니어 하치니 조니어는 닝어를 술찌꺼기에 너혀 담은 거시라 우리나라 식혀갓트디 므이 쫘니 밥반찬으로 먹기 그장 도터라”

44 한문본에는 “松都에 도착하여 太平館으로 들어가 비로소 彦, 信 두 아이들과 백씨를 뵈었다. 배행해 온 하인들(伯氏陪下人)이 모두 와서 맛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많이 왔는데 그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至松都入太平館, 始與彦信兩兒相見. 伯氏陪下人, 盡數來迎, 他相識人亦多來, 不能盡記.)”라고 되어 있다.

“송도 니르러 대평관 드니 비로소 언 신 양익 니르러 보니라 빅시빅【피시논하인】하인이 다 왔고 아는 사름 오니 만흐니 기록지 못홀너라”

45 이밖에 한문본의 〈山川風俗總錄〉에 해당하는 〈피디산천풍속〉에 ‘수도미(水稻米)’에

심지어 한자어가 등장한 뒤에는 해당 한자어의 훈과 음을 덧붙이고 있기까지 한다.

..... 민 우층의 ‘옥음(玉音)’ 두 즈를 사기고 【구슬옥 소리음】 둘재 층의논 안련을 ‘원훈초석(元勳初錫)’이라 사기고 【웃듬원 공훈 ” 최음초 줄석】 반련을 ‘등단준련(登壇駿鍊)’이라 사기고 【올울등 단 ” 클준 밋올열】 세재 층의 대락(祖大樂)과 브(父) 승곤과 그 조(祖) 인과 그 증조(曾祖) 딘네 직직함(在職銜)을 다 버려쓰고 네 기동의 다 칭송호는 문즈를 두루 써시니 다 기록디 못홀러라⁴⁶

물론 임창순본도 다른 한글본 연행록에 비하여 주석이 많이 삽입된 편은 아니다.⁴⁷ 그러나 가람본은 임창순본 보다 주석의 빈도가 확연히 더

대해 ‘슈도는 논외 간 베니라’는 내용 등의 주석이 산견된다. 『연행일기』(임창순본) 1권 37쪽, 〈피디산천풍속〉. “북경은 혹 슈도미 이시디 뵈이 굵고 비침이 희디 맑을 지으면 종시 세니 산도의 비흐면 나을만흐더라 【슈도는 논외 간 베니라】”

46 『연행일기』(임창순본) 2권 105쪽. 1712년 12월 15일조. 영원성 내문 안의 祖大樂의 패루에 대한 묘사. 괄호 안의 한자는 본고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예문의 “세재 층의 대락(祖大樂)과 브(父) 승곤과 그 조(祖) 인과 그 증조(曾祖) 딘네 직직함을 다 버려쓰고 네 기동의 다 칭송호는 문즈를 두루 써시니 다 기록디 못홀러라”는 부분이, 한문본 『노가재연행일기』에는 ‘아래층에는 四世의 직함을 列書하였다(下層列書 四世職銜)’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47 1858년(철종 9) 연행에 서장관으로 참여한 金直淵(1811-1884)과 같은 경우, 한문본 『燕槎日錄』과 한글본 『연행록』 2종의 연행록을 남겨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분석이 용이하다. 김직연의 한글본 연행록인 『연행록』의 경우에는, 관직명은 물론 전 문용어, 예법, 이국의 문물과 풍토, 가옥구조, 복식, 음식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주석을 삽입하여 한글본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을 취했다. 예컨대, “황녀저주관(皇曆齋咨官) 일홈은 히마다 동지(冬至) 밋쳐 중원(中原) 칙녀(冊曆) 맛타오는 역관(譯官)이라”, “망하례(望賀禮)는 외방(外方)서 초하로 보름으로 깃스(客舍)의 전궐(殿牒) 되신 디 가서 대궐을 바라보아 스빅(四拜)호는 일홈이라.”,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이라는 것은 스신길의 역말대령호는 관원이라.”, “강(炕)이라는 일홈은 구들을 일음이라.”, “석탄은 싸의서 나느 돌숫치라.” 등의 주석이 소자쌍행으로 삽입되어

적은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낮은 주석의 빈도는 독자층의 가독성을 배려한 필사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추정된다.

『熱河日記』의 한글 번역본인 동경대본 『熱河記』 같은 경우에도 표지의 배면에 적혀있는 9개의 '일러두기' 형식의 용어풀이⁴⁸ 외에는 소자쌍행으로 추가된 주석이 매우 적은 편이다.⁴⁹ 반면 한글본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듯한 용어는, 별도의 주석을 삽입하는 대신 해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방식을 취한 것이 주목된다.⁵⁰

이러한 주석삽입의 의도적인 배제는 독자의 이해도를 감안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독성까지 염두에 둔 번역으로 보인다. 즉 한문본 곳곳에 삽입된 주석을 한글본에서는 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조양원(2012), 앞의 논문 참조).

48 『열하기』와 같은 경우, 표지의 배면에 '일러두기' 형식의 주석이 미리 적혀 있기도 하다. 표지 배면에 기록된 주석은 '만주', '강', '지현', '징즈', '푸즈', '픽루', '노야', '고두', '만세야' 등으로, 이는 한글본 독자층의 배경지식을 감안하여 필요한 설명을 미리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조양원,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 연구」, 『민족문화』 44(2014), 99-100쪽 참조).

49 간혹 한문본에 없는 주석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빈도는 많지 않다. 1780년 8월 3일 기사에 “무관빅(懋官聒)【무관의 일홈은 니덕무(李德懋)라】 예와 칙을 사고”와 1780년 8월 6일 기사에 “정후【아국으로 이르면 장승ㄱ튼 거서라】에 써스되 순의현(順義縣) 괴경(其境)이라” 정도의 주석이 보인다.

50 예컨대 한문본 『열하일기』에 ‘帖裏’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참리는 方畵으로 철릭(天翼)이라 한다. 비장은 우리 국경 안에서는 철릭을 입다가, 강을 건너면 狹袖로 바꿔 입는다(帖裏方言天翼, 裨將我境則著帖裏, 渡江則換着狹袖).”라는 주석이 삽입된 반면, 한글본 『열하기』에서는 별도의 주석을 삽입하는 대신, ‘帖裏’를 우리말 ‘천닉’이라 적은 경우이다. 한문본의 ‘蘋果’에도 “빈과는 곧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沙果요, 중국의 이른바 사과는 곧 우리나라의 능금(林檎)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東平尉 鄭公 載齋이 사신으로 갔을 때에, 가지에 접을 붙여 동쪽으로 돌아온 뒤로 우리나라에 비로소 많이 퍼졌으며, 그 이름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한다(蘋果 卽我國所稱沙果, 中國所稱沙果, 卽我國林檎, 我國古无蘋果, 東平尉鄭國載齋奉使時, 得接枝東還, 公中始盛而名則訛傳云).”라는 장황한 주석이 달려 있으나, 한글본에는 그냥 ‘사과’라고 적고 있다.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보다 매끄럽게 읽히게 하려는 독자 배려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글본 연행록 중, 주석의 삽입빈도가 적어지는 현상이나, 주석의 역할을 하는 부연설명을 본문에 포함시켜 서술하는 양상은 한글본 연행록의 독서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한글본 연행록을 개인이 돌려가며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읽는 방법은, 시간상 비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기 힘든 노인층이나 책상에 정좌하여 정독(精讀)하기 힘든 사유가 있는 이들에겐 독서의 기회가 배제됐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⁵¹ 특히 대량으로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한글본 연행록이기에, 한글의 독해가 가능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면, 한글본 연행록의 향유계층은 집안의 여성층과 원근의 인척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독사(講讀師)가 존재했으리라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예컨대 집안의 여성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 모여, 그 중 한글의 독해에 능숙하고 목소리가 청량한 이를 선정하여 한글본 연행록을 강독하게 했다면, 한 사람의 독서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문중의 어떤 이가 강독사(講讀師) 내지는 강담사(講談師)의 역할을 했다면,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가문의 구성원들과의 경험 공유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주석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강독사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야기의 흐름을 중간에 끊고

51 예를 들어 老眼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노인계층과, 신체적인 부상이나 와병으로 인하여 책상머리에 앉을 수 없는 이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독자층에서 배제되고 만다.

해당용어에 대한 주석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독이 이루어진다면, 청취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거나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 듣는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책을 읽는 이의 호흡과 이야기를 듣는 이의 이해도를 모두 고려한다면 주석의 삽입은 오히려 적을수록 그 효과는 배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석이 필요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여 주석의 삽입을 최소화하거나, 부연설명을 본문에 섞어 덧붙이는 방식으로 필사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⁵²

2. 전문 필사자의 개입 가능성

규장각 소장 가람본 『연형일기』의 경우, 유통을 목적으로 한 전문 필사자가 개입하여 필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가람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이점 때문이다.

우선 가람본은 임창순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에 비하여 글씨가 정련되어 있지 않고,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간격이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사실은 필사자가 한 두 명에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필사기에 적혀 있는 ‘당촌’이라는 지명도 주목된다. 동경대본 『열하기』에도 ‘당촌’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⁵³, 가람본에도 ‘당촌’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여 『열하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당촌’에서 ‘번역’ 또는 ‘번서’됐을 『열하기』와 필체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 번역과 필사를 전문적

52 조양원(2016) 앞의 논문, 165쪽 참조.

53 동경대 소장 한글본 『열하기』에는 “기미 스월 회일 당촌서 번역하다”, “기미 스월 회일 당촌서 번서하다”, “기미 팔월 이십일 당촌서 쓰다” 등 ‘당촌’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한다.

으로 담당하는 이들이 ‘당촌’을 거점으로 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번역 및 필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든다.⁵⁴

그림1의 임창순본과 그림2의 순천시립박물관본은 글씨가 미려하고 정서되어 있으며,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간격이 일정하여 필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3의 가람본은 정서라고 보기 힘들며 단시간에 많은 분량을 필사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더구나 그림4의 동경대본 『열하기』는 가람본과 함께 ‘당촌’에서 필사된 것이다. 두 본은 필체가 흡사하며 좌우 모서리에는 책장을 넘길 때 손으로 잡아 넘기는 침 묻히는 자리를 비워둔 것도 동일하다. 침 묻히는 자리를 비워두는 방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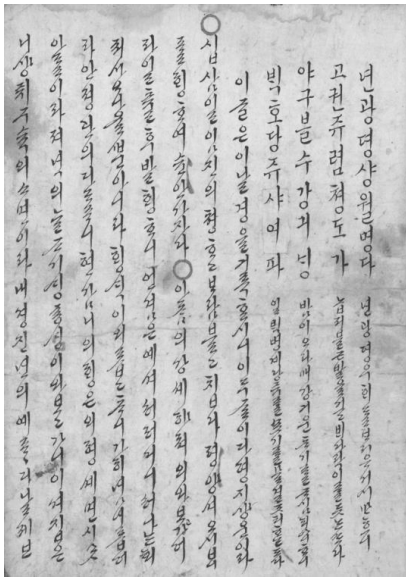


그림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창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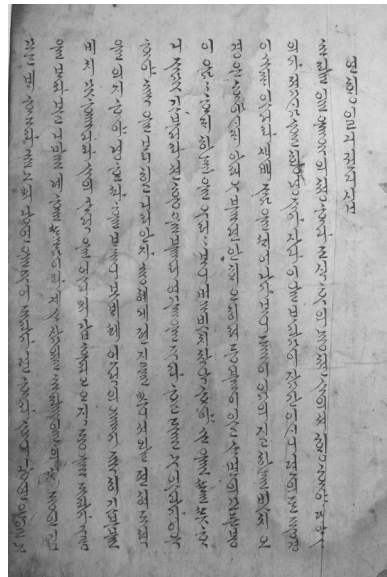


그림2-순천시립박물관 소장본

54 가장본으로 추정되는 임창순본의 경우 유통의 범위가 원근의 족친 정도에 한정됐다면, 번역 및 필사를 담당한 전문적인 집단이 등장한 이후에는 보다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유통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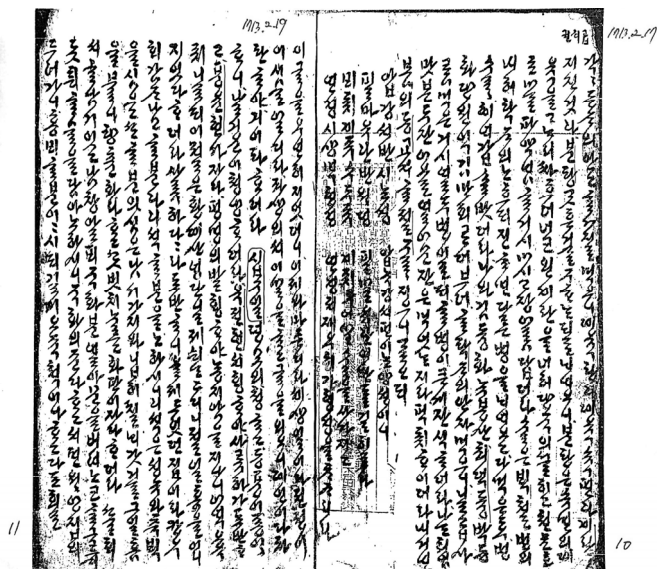


그림3- 규장각 소장 가람본 『연행일기』

로 필사가 짓은, 많은 사람들의 잦은 독서를 대비한 필사 방식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⁵ 더구나 위아래의 여백이나 행간의 간격도 매우 좁은 것으로 보아, 한정된 종이에 많은 분량의 글을 적고자 흔적도 엿볼 수 있다.⁵⁶ 이러한 흔적들은 세책방에서 유통되었던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 55 한글본 『열하기』의 이러한 특징은 선행연구(조미희,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의 번역 양상』, 『溯上古典研究』 제49집(2016), 97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필사하고 글씨가 고르지 않다는 점, 옳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책을 빨리 베끼고 원본은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상황임을 떠올릴 수 있다.”(조미희(2016), 위의 논문, 97쪽)라고 지적했으나, 여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열하기』의 필사기에 ‘귀미 스월 회일 당춘서 번역하다’, ‘귀미 스월 회일 당춘서 번서하다’라는 필사기의 ‘번역’과 ‘번서’라는 용어를 고려할 때, 모종의 원본을 베껴 필사한 것이 아닌, 번역과 필사가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 56 물론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기에,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간격 등은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한 편이다. 그러나 글자의 크기가 확연히 커지거나 간격이 넓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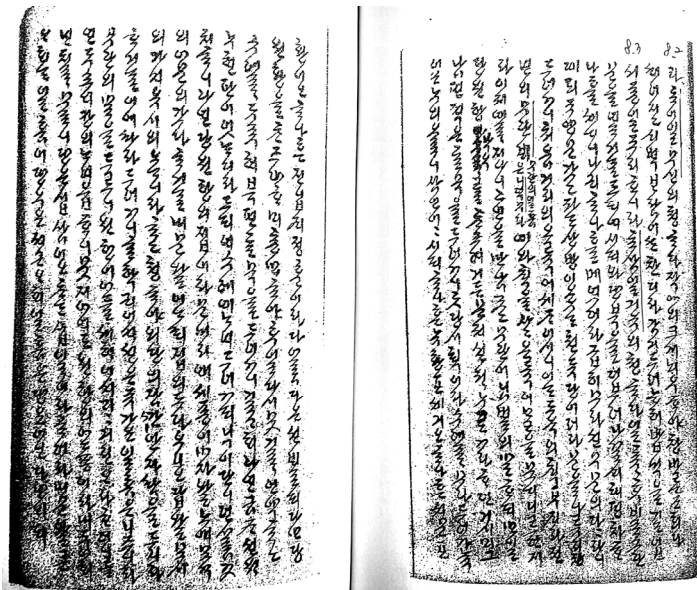


그림4-동경대 소장본 『열하기』

있는 특징들이다.⁵⁷

또 하나 주목되는 특이점은 앞서 언급한 가람본 말미의 '구귀주'와 관련한 야담이다. 가람본의 연행록은 188쪽의 1713년 3월 30일 기사에 귀국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왕반 다섯 둘이 물웃 일씩스십륙일이니 노둑 뉴관이 스십륙일이오 길회거릭 통호야 육천이십팔니오 북경셔 출입흔 것과 길회에 셔 단닌 거시 또 육씩칠십삼니라 시 어든거시 스씩이편이라”라고 일기의 내용을 매듭짓고 있다.⁵⁸ 이어 “임즈 스월 초칠일 당춘셔 필셔”라는 필사가

지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그림3과 같은 필사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7 따라서 한글본 연행록 역시 세책방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현전 자료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8 한문본에는 “연경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5개월로 모두 146일이 걸렸고, 갔다 온 거리는 합하여 6,028리였다. 연경(燕京)에서 출입한 것과 길에서 돌아다니

적혀 있는데, 다음 장인 189쪽과 190쪽에는 ‘구기주’와 관련한 이야기가 맥락 없이 중간부터 실려 있다.⁵⁹ 문제는 ‘구기주’ 관련 내용이 마무리된 이후 “임궐 초하 념오일 당촌 상방 후창하의서 종서”⁶⁰라는 필사기가 한번 더 적혀 있다는 것이다.

것이 또한 675리나 되었고, 얻은 시문(詩文)은 402편이었다(往返五朔, 共一百四十六日, 去來路程, 共六千二十八里, 在燕京出入及在道迂行者, 又六百七十五里, 得詩四百二篇.)”라고 끝맺고 있는데, 한글본의 “왕반 다스 돌이 물웃 일씩스십늑일이니 노뎡 뉴관이 스십늑일이오 길회거릭 통하야 늑천이십팔니오 북경셔 출입흔 것과 길회 에서 단닌 거시 또 늑늑칠십삼니라 시 어든거시 스늑이편이라”라는 내용과 비교할 때, 한문본에는 없는 ‘노뎡 뉴관이 스십늑일이오’라는 부분이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59 ‘구기주’와 관련한 내용은, 『弘齋全書』 178권 「日得錄」 18, 〈訓語〉 5조에도 실려 있고, 『芝峯類設』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洪萬選의 『山林經濟』 권1의 「攝生」, 〈服食〉조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가람본의 189쪽과 190쪽에 실려 있는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밋적하셔 스진(使者) 길히셔 혼 계집을 보니 나히 십늑칠은 혼거시 혼 백발노옹(白髮老翁)을 치니 노옹(老翁)이 나히 늑칠십(六七十)이나 혼 디라 스재 무룬디 어린계집이 엇지 노옹을 디느는 혼디 그 계집이 곱오디 이는 내 셋재 아들이라 약석을 주느를 아지 못흐고 날이 에서 문져 세여시니 그래무른 되느이다 혼디 스재 그 나흘 무룬디 곱오디 삼백아흔다스시로라하니 사재 말아리느려 권하며 당싱불노약(長生不老藥)을 무룬디 그 계집이 구기주법을 써주니 스재 도라가 그 법디로 키여 먹으니 삼백년을 늙지 아니흐고 그 법의 정월(正月) 망전(望奠) 상인일(上寅日)의 썰회를 키야 세절(細切)하야 음건(陰乾)하야 혼되를 이월(二月) 상묘일(上卯日)의 청주(淸酒) 혼말의 타 칠일만의 거지(去滓)하야 새빅 먹고 식후(食後)는 먹지말며 스월(四月) 상스일(上巳日)의 님흘 짜 세절(細切)하야 음건(陰乾)하야 혼되를 오월(五月) 상오일(上五日)의 청주(淸酒) 혼말의 담것다가 칠일(七日)의 먹고 칠월(七月) 상신일(上申日)의 쏏줄 짜 음건(陰乾)하야 혼되를 팔월(八月) 상유일(上酉日)의 청주(淸酒) 혼말의 담것다가 먹고 시월(十月) 상히일(上亥日)의 열믹를 짜 세절 음건(細切陰乾)하야 혼되를 지월(至月) 상즈일(上子日)의 청주(淸酒) 혼말의 타 먹으면 열 사흘만의 몸이 가빅압고 기운(氣運)이 성(盛)하야 백날(百日)만의 얼굴이 충장(充壯)흐고 백발(白髮)이 환흑(還黑)흐고 낙치(落齒) 도로 나느니라 임궐(壬子) 초하(初夏) 념오일(念五日) 당촌 상방(上房) 후창(後窓) 하(下)의서 종서(終書)”(괄호 안의 한자는 본고에서 임의로 덧붙인 것이다.)

60 ‘초하(初夏)’ 역시 음력 4월 즈음을 의미하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람본과 함께 ‘구기주’ 관련 내용도 번역(번서) 혹은 필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행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귀주’ 관련 내용과 함께⁶¹ 가람본의 맨 마지막 부분인 188쪽과 189쪽, 190쪽과 191쪽 사이의 간격이 넓고 엮인 형태가 험거운 흔적이 눈길을 끈다. 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지의 첫 장은 김창업의 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즉 내지의 첫 장과 맨 마지막 두 장은 『연행일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⁶²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표지와 내지가 떨어져 있던 것을 다시 엮는 과정에서 다른 책의 일부가 낱장으로 끼어들었거나, 애초 책을 엮을 때 다른 책의 필사본이 한 두 장 잘못 엮인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내지 첫 장에 기록된 한시도 전문이 실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겨 있다는 사실 역시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다.⁶³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가람본은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본을 전문적으로 필사하여 유통하는 이들에 의해 필사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근거지는 ‘당촌’이라는 곳으로 ‘임죽년’과 『열하기』가 번역됐을 ‘귀미년’을 포함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61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문본인 『노가재연행일기』와 순천시립박물관본에는 ‘구귀주’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62 원본을 확인하여 지질이나 엮인 형태를 면밀히 관찰하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복사본과 스캔본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kyudb.snu.ac.kr)는 이미지는 글자가 적힌 부분만 잘라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저장된 까닭에, 각 낱장의 가장자리나 연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63 앞서 언급했듯이, 내지 첫 면의 한시는 6구 첫 글자 이후 뒷부분이 적혀 있을 다음 장에는 〈연행일기 권지일 동행록 노가재일기〉가 시작되어 시 전문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시는 『노가재집』의 「연행훈지록」은 물론, 임창순본, 순천시립박물관본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김창업의 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지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책을 보수하거나 제본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끼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것으로 짐작된다.⁶⁴

V. 필사 시기 추정

가람본의 필사 시기는 ‘임자년’인 것을 고려하면, 1732년, 1792년, 1852년 중의 어느 한 해라 추정되는데, 한글연행록이 빈번하게 번역되었던 18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람본에서 사용된 어휘나 표기법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당촌’에서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본 『열하기』의 번역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가람본의 필사 시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 추정하는 ‘임자년’의 특정년도는 1732년 내지는 1792년으로 추정한다. 1852년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이유로는 우선 연행록에 삽입된 한시의 번역 양상이 18세기를 넘어 19세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과 초학자를 위한 한시 번역서가 빈번하게 출간되었다. 이는 학시(學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한시교육서의 번역에 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통 한문 교육을 배우는 계층에게는 『두시언해(杜詩諺解)』와 같은 한글번역서나, 『택풍당비해(澤風堂批解)』 같이 구결과 비평이 수록된 학두서(學杜書)가 널리 수용되었으

64 동경대본 『열하기』의 번역시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조미희(2016), 앞의 논문)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본고의 5장에서는 ‘기미년’을 1799년으로 추정하여 논지를 진행하였다. 이는 여러 정황상 ‘기미년’을 1799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양원(2014), 앞의 논문, 5장; 조양원(2016), 앞의 논문, 주석 104번 참고.

며⁶⁵,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게는 보다 쉽게 쓰인 한시 교육서가 편찬 수용되었다.⁶⁶ 본격적으로 아동 및 여성 등 초학자를 위한 한시번역서는 16세기 중반 등장하였는데, 한시 원문에 한자음을 병기하고 번역을 수록한 『언해절구(諺解絶句)』⁶⁷와 번역과 주석이 수록된 『자훈언해(字訓諺解)』⁶⁸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16세기에는 일반 백성의 계몽과 교화를 위하여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1518), 『정속언해(正俗諺解)』,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경민편언해(警民編諺解)』 등이 번역되었는데,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구결을 다는 방식도 있는 반면, 번역문 전체를 오로지 한글로만 번역한 경우도 빈번하였다. 특히 1581년 중간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경우는 한자가 모두 사라지고 한글만으로 번역이 되었고, 한문 원문에도 구결이 달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번역상의 흐름으로 인해 18세기에 들어서는 초학자나 여성층의 경우에는 한문 원문은 아예 제외하고 한글로만 시를 배우고 구결을 익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즉 조선 초기의 한시 번역 양상은 한시 원음을 한글로만 적거나

65 『杜詩諺解』는 한시 원문에 한글로 음을 부기하지는 않았으며, 주석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되어 기록되었으며, 『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구결을 달고 주석과 저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번역보다는 정확한 구결이 중요했던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두시언해』보다 더 많이 읽힌 學杜書이다.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학보』 104(2007);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참조.

66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아동이나 여성층을 위한 한시 교육서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1431년 朴興生이 엮은 『對句聯珠集』은 쉬운 한시 구결을 뽑아 초학자를 위한 한시 교육서로 활용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저작이다. 이종목(2007), 앞의 논문 참조.

67 남권희의 연구(「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8(1999))에 따르면, 『언해절구』는 『學鄒通辨』의 배집지에서 2면만 발견되었으며, 1481년에서 1576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이종목(2007), 앞의 논문, 주석 12번 참고).

68 宋나라 程端蒙의 저작인 『字訓』을 盧守愼(1515-1590)이 조카를 위해 번역과 주석을 달았다. 황문환, 「字訓諺解」, 『문헌과 해석』 3(1998) 참조.

한시 원음을 한글로 적고 옆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 혼용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이후의 한글연행록에서는 한시가 대부분 생략되고, 삽입 되더라도 한시 원음을 한글로만 적고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었다.⁶⁹

이러한 시대에 따른 한시의 번역 양상을 고려하여, 가람본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에 주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삽입시가 눈길을 끈다.

아夜숙관觀음동洞 밤의관음동의서자니
 잔潺완媛몽夢니裏천泉 잔완흔숨속십이로다
 착錯위爲풍風우雨디至 글노풍위니른다하고
 괴起간看성星만滿턴天 니러보니별이하늘의그득헛엿도다⁷⁰

가람본에 수록된 한시는 모두 7수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삽입시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삽입시는 한자어의 원음을 한글로 먼저 적고 그 옆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 방식이다.⁷¹ 18세기 초에 엮여졌을

69 조선시대 한시번역서의 한글전용과 관련해서는, 이종묵의 연구(「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집(2002); 이종묵(2007), 앞의 논문)에 상세하다.

70 1713년 2월 17일(52쪽). 한문본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鴨江西畔是遼城 압록강 서쪽 저편은 요동성인데,
 匹馬榆關半月程 필마로 유관(榆關 지금의 산해관)까지 보름 길이라.
 買取薊州數斗酒 계주에서 술 몇 말 사 가지고 가서,
 燕京市上覓荊卿 연경의 저자에서 형경을 만나리라.

71 1713년 2월 17일 기사에 삽입된 시를 제외한 나머지 6수의 시는 한자어를 한글로 적고 번역문을 아울러 실은 형태이다.

압강셔반시뇨성 압록강셔편이뇨양성이니
 필마유관반월딩 필마로셔관이반돌길히로다
 미취계주수두쥬 계쥬두어말술을사가지고
 연경시상명형경 연경저재우히가형경을츠즈리라 <1713년 2월 17일(10쪽)>
 만니동빈안 만니의흔가지로손되얏는기력이
 유언막쇼위 오직조곰도어괴미업슬가헛얏더니

것으로 추정되는 임창순본⁷²의 경우에도 한시는 한자어의 원음을 한글로만 적고 번역문을 적고 있는 방식인데, 보다 후대에 필사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람본에 한자어의 음과 한자어 병기가 발견된다. 임창순본에는 현판이나 비석에 적힌 한자어에 원음을 한글로 적고, 훈과 음을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에게 한자어의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⁷³

비슷한 시기와 ‘당촌’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번역된 동경대본 『열하기』의 경우에 삽입된 한시는 합본된 소시집(小詩集)의 시를 제외하면⁷⁴ 모두 5수에 지나지 않는다.⁷⁵ 그런데 5수의 한시는 모두 원음을 한글로 적고, 한자를 병기하지는 않은 대신 한글로 구결을 추가하고 있다.⁷⁶

홍장도락낭황기 불근 단장이 아춤의 낭황기에 써러지니
가박상심제오스를 호가십팔박의 제오식 마음을 상하느도다

귀지님학야 엇지학에틀님하야

불궁일항귀 즐겨흔줄노도라가지아닐줄알니오 <1713년 3월 5일(85쪽)>

- 72 김창업의 시문은 아들인 金彦謙과 金仁謙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遺稿를 수습하고 죽절인 金時保(1658-1734)가 刪定하였다. 김시보는 自編草稿를 바탕으로 편차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김시보의 몰년을 염두에 두면 늦어도 1730년대 초에 문집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헌순, <『老稼齋集』 해제>, 한국문집총간 175 참조.
- 73 주석 41번 참조.
- 74 합본된 小詩集은 『열하일기』의 시를 번역한 것이 아닌, 번역자인 ‘공닌’과 주변 인물들의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소시집의 시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조양원(2014), 앞의 논문)를 참조하라.
- 75 동경대본 『열하기』에 한시가 삽입된 경우는 총4회, 5수이다. 『연행록선집보유』 하권의 936쪽에는 榛子店의 벽에 붙은 季文蘭의 시를 삽입하였고, 937쪽에는 奇豐額이 연암에게 계문란의 시를 듣고 즉석에서 지은 시를 삽입하였다. 또 1,005쪽에는 <육갑야화>에서는 중간에 <피서록>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피서록>의 中宗 때 南越(?)가 겪은 일화와 함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시를 삽입했으며, 1,007쪽에는 『感舊集』에 수록된 金尙憲의 시를 두 편 연달아 삽입하고 있으며, 이외 한문본에 수록된 시는 모두 생략하였다. 조양원(2014), 앞의 논문, 주석 59면에서 재인용.
- 76 동경대본 『열하기』 후반부에 합본된 소시집에도 마찬가지로 구결이 빈번하게 사용됐음이 확인된다.

천하남이무땡덕하니 천하의 남이도 땡덕이 업스니
 천금속속채문희오 천금을 너 채문희를 속방하리오⁷⁷
 창허난심쥬거덕이오 프른 바다히 비 간 즈최를 찾긔 어렵고
 청산불견학비흔을 프른 산의논 학의 나라간 혼덕을 보디 못홀러라⁷⁸

두 수의 시 모두 원시(原詩)의 한자어 발음을 한글로 적고 아울러 번역을 실고 있는데, 시구에 ‘를’, ‘하니’, ‘이오’, ‘을’ 등의 구결이 달려 있음이 확인된다. 한시에 한글로 구결을 다는 것은 조선 초기 한시 번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18세기 무렵에는 한글 번역서가 아예 한글만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18세기 중반 정도에는 한글전용의 번역 성행하여, 한문 원문을 아예 적지 않고 번역문도 오로지 한글로만 적는 전통은 영조(英祖)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로 구결이 달린 한시 번역은 18세기 중엽이 가장 마지막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동경대본 『열하기』의 번역 및 필사 시기는 ‘기미년’이다. 연암의 연행시기를 고려하면 1799년 혹은 1859년 중의 한 해로 추정되는 까닭에 선행연구에서는 각각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⁸⁰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여러

77 「연암열하일기 권지이」, 『연행록선집보유』 하권, 937쪽. 원문과 현대역은 다음과 같다.

紅粧朝落鑲黃旗 붉은 단장을 하고 아침에 되놈(鑲黃旗)에게 팔렸으니,
 筊拍傷心第五詞 상심됨은 胡家十八拍的 다섯 번째 가사로다.
 天下男兒無孟德 천하의 남아 중에 曹孟德 같은 이 없으니,
 千金誰贖蔡文姬 니라서 千金으로 蔡文姬를 속량해 오리오.

78 「연암열하일기 권지이」, 『연행록선집보유』 하권, 1,005쪽. 원문과 현대역은 다음과 같다.

滄海難尋舟去跡 창해에 떠난 배는 찾을 곳이 전혀 없고,
 靑山不見鶴飛痕 청산에 나는 학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79 이종목(2007), 앞의 논문, 190쪽.

80 조양원(2014)은 ‘기미년’을 1799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미희(2016)는 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조미희(2016, 99쪽)는 ‘ㅂ’계 합용병서 ㅂᄃ, ㅂᄅ, ㅂᄇ 등은

정황이나⁸¹ 한글연행록이 빈번하게 번역되던 시기, 또 삽입시에 구결이 사용된 것을 감안한다면 필사시기를 1792년이나 그 이전인 1732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과도한 추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는 『을병연행록』을 위시한 한글본 연행록이 다량으로 출현하던 시기이다. 동경대본 『열하기』는 차치하더라도, 황인점(黃仁點, ?-1802)의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ㅂ’계 합용병서만으로 필사시기를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구개음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음운변동 등을 통해 1859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까지도 한자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1780년 7월 1일 일기의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동경대본은 초고본 계열이나 비개작본 계열을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1780년 7월 1일 일기의 내용은 연암이 바깥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 여주인을 보러 나간 내용으로, 초고본계열과 비개작본 계열에는 실려 있으나, 개작본 계열과 정본 계열에서는 그 내용의 저속함을 문제삼아 삭제하였다(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참고). 따라서 한문본의 개작본이나 정본 계열이 정립되기 이전의 판본을 한글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조양원(2016), 앞의 논문, 주석 104번, 105번)에서 제시한 다른 근거들을 함께 고려할 때, ‘괴미년’이 1799년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81 『열하일기』의 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초고에 해당되는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燕行陰晴』 또한 1789년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俞晚柱(1755-1788)가 1783년 11월 24일 일기에서 『열하일기』를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 정조가 연암에게 문풍을 어지럽힌다며 自訟文을 요구한 점, 18세기 후반에 黃仁點(?-1802)의 한글본 연행록인 『승사록』과 『열하일기』의 또 다른 이본인 명지대 소장 『열하기』(한글본)가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점, 한글본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만한 <호질>이 초고본 『열하일기』에는 대부분 수록되지 않고 개작본 계열에만 실려 있는 바, 한글본 『열하기』에도 역시 수록되지 않았을 이유가 초고본을 그만큼 이른 시기에 번역했기 때문일 가능성 등을 미루어 보면, 1799년에 번역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조양원(2016), 앞의 논문, 2장 5절 참조). 게다가 명지대 소장 『경술열하기』의 필사시기는 18세기 말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김태준,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화사연구 19호(2001)), 선행연구의 필사시기 추정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동경대본 『열하기』의 필사시기를 보다 정확히 批正하는 문제는 추후 논지를 보완하여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글본 연행록인 『승사록』⁸²은 乾隆 55년인 1790년 경술년의 연행기록이며⁸³, 이백형(李百亨, 1737-?)의 저술로 추정되는 한글본 「경술 열하기」 역시 1790년 10월에서 1791년 1월 사이에 저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⁸⁴ 게다가 「경술 열하기」는 명지대 소장 『열하기』와 합본된 것이기에, 명지대본 『열하기』 역시 18세기의 한글번역본임이 거의 확실시된다.⁸⁵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가람본 역시 기존의 한문본 연행록이 한글로의 번역 및 필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인 18세기 후반에 재차 필사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필사기에 ‘번역’이나 ‘번서’라는 언급이 없고, 한문본에 없는 내용⁸⁶이 다른 한글본⁸⁷에만 공통으로 발견되는 양상을 염두에 두면, 한문본을 대본으로 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닌, 한글본(임창순본)을 단순 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하리라 판단된다. 물론 1713년 3월 22일 기사와 같이, 숙부인 김수하(金壽河)를 한문본에서는 ‘수하 숙부[壽河叔]’라 표기한 반면, 한글본에서는 ‘슈해’라고 이름만 적혀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⁸⁸, 가장본인

82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3권 3책.

83 고운기는 그의 논문(「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 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0집(2004), 22쪽)에서 연행과 동시에 저술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연행을 다녀오고 오랜 시간을 경과하지 않아 지은 것이 분명하며, 부마였던 지은이가 궁중에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연행직후 쓰였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84 김태준(2001), 앞의 논문, 284-285쪽 참조.

85 명지대본 『열하기』를 살펴보면, 고유어에는 거의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는 구개음화 현상이, 18세기 말까지도 한자어에서는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ㄴ’계 합용병서 중 ‘ㄴ’ 역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86 부분적으로 추가된 일화나 특정 지명 및 인명 등.

87 1713년 3월 18일 기생수청과 관련한 내용은 한문본에는 없는 내용이나, 가람본과 순천시립박물관본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88 1713년 3월 22일(177쪽). 金壽河(?~?)는 숙부[叔]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직계가 아닌 방계의 인물로 보인다. 김창업의 부친인 金壽恒(1629-1689)의 형제는 金壽增, 金壽

임창순본을 전사(轉寫)한 것이 아닌 필사과정에서 나름의 편집이 다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VI. 맺음말

본고는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된 김창업의 한글본 『연행일기』를 대상으로, 그 내용 및 구성을 살펴보고 자료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김창업의 한문본 연행록인 『노가재연행일기』와 현전하는 여타 한글본 2종도 대략이나마 살펴보았으며, 규장각 소장 가람본 『연행일기』의 특징과 그 자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가람본 『연행일기』는 전반부의 〈동행록〉 및 〈피지산천〉 등을 제외하면 1713년 2월 17일부터 동년 3월 30일까지만 수록되어 있는 영본(零本)이다. 또한 한문본에 비해 생략과 축약의 양상이 뚜렷이 드러나며, 한글본 중 정본으로 꼽히는 임창순본과 비교하여도 생략된 부분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글본 연행록이나 장동 김씨 가문의 가장본으로 여겨지는 임창순본에 비해 주석의 삽입빈도가 더 낮으며, 번역 및 필사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유통을 목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정해보았다. 주석의 삽입빈도가 낮은 이유는 한글본 독자층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배려한 필사자의 의도적인 편집양상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는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규장각에 소장된 김창업의 한글본

興의 친형과, 金壽徵, 金壽應, 金壽稱, 金壽能의 庶弟뿐인데, 김수하가 ‘壽’자 항렬인 것으로 보아, 원근의 족친일 가능성이 높다.

연행록 『연행일기』(가람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글본 연행록 연구의 토대를 부분적이거나 보완하고, 전반적인 연행록 연구에 다양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김창업의 연행록 전반에 걸친 대략적인 연구가 완성됐다는 의미도 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연행록 전집(燕行錄全集)』이나 『연행록선집보유(燕行錄選集補遺)』 등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외면했던 여타의 한글본 연행록이나, 각종 이본들까지 그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한글본 연행록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동안 실증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증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선후기의 한글번역서 수용양상과 상업적 목적의 전문필사자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고전소설의 유통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자료를 축적하고 논지를 보완하여 별도의 논문을 통해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_____, 『연행일기』.

_____, 『燕行日記』.

_____, 『稼齋燕錄』.

_____, 『老稼齋集』.

2. 단행본

대동문화연구원 저, 『燕行錄選集補遺』.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박재연·이재홍·이상덕 교주, 『상봉록』. 학고방, 2013.

박지원 저, 김철조 역, 『열하일기』. 돌베개, 2009.

박지원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열하일기』. 『고전국역총서』 18-19, 민문고, 1967.

신익철 외,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_____, 『연행사와 북경천주당: 연행록 소재 북경 천주당 기사집성』. 보고서, 2013.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_____, 『燕行錄全集』 1-100.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조규익 외, 『연행록 연구총서』 1-10. 학고방, 2006.

_____, 『국문 사행록의 미학』. 도서출판 역락, 2004.

3. 논문

고운기, 「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 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4, 5-28쪽.

구사회, 「순조 21년 신사연행과 연행록의 두 시각」. 『우리문학연구』 43, 우리문학회, 2014, 7-33쪽.

김덕수, 「朝鮮 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105-137쪽.

김동건, 「『熱河日記』와 〈醫山問答〉의 關係 再考」. 『대동문화연구』 85권, 성균관대학

- 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169-198쪽.
- 김명호, 「열하일기 異本の 재검토: 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중심으로」. 『동양학』 48권, 2010, 1-19쪽.
- 김태준, 「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 『민족문학사연구』 1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1, 282-328쪽.
- 남권희, 「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8, 1999, 1-33쪽.
-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37-62쪽.
-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박현순, 「『老稼齋集』 해제」. 『한국문집총간』 175. 2000.
-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소재영, 조규익, 「담헌연행록연구」. 『동방학지』 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193-249쪽.
- 신효련, 「노가재 『연형일기』 국문본의 이본 고찰: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43-65쪽.
- 윤경희,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金昌集의 燕行墳簾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 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285-310쪽.
- 이장우, 「燕行日記 解題」. 『燕行錄選集』, 1976.
-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쪽.
- _____, 「조선시대 臥遊 文化研究」.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81-106쪽.
- _____,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 2002, 5-39쪽.
- _____,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59-89쪽.
- 조규익, 「朝鮮朝 국문 使行錄의 通時的 연구」. 『어문연구』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83-104쪽.
- 조미희,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의 번역 양상」. 『洙上古典研究』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95-130쪽.
- 조양원, 「김직연의 연행기록 『燕槎日錄』·『연형록』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43-277쪽.
- _____, 「동경대 소장 한글본 『熱河記』 연구」. 『민족문화』 44, 한국고전번역원,

2014, 79-120쪽.

_____, 『燕行錄 翻譯 樣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최강현, 「미발표 국문본 연행록을 살핌: 주로 지은이 고증을 중심으로」. 『송실어문』 18, 송실어문학회, 2002, 301-320쪽.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2011, 5-37쪽.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泐上古典研究』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67-94쪽.

국문초록

본고는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된 김창업의 한글본 『연행일기』를 대상으로, 그 내용 및 구성을 살펴보고 자료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김창업의 한문본 연행록인 『노가재연행일기』와 현전하는 여타 한글본 2종과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규장각 소장 가람본 『연행일기』의 특징과 필사 시기에 대해서도 대략이나마 추정하였다.

가람본 『연행일기』는 전반부의 〈동행록〉 및 〈피지산천〉 등을 제외하면 1713년 2월 17일부터 동년 3월 30일까지만 수록되어 있는 영본(零本)이다. 또한 한문본에 비해 생략과 축약의 양상이 빈번하게 드러나며, 한글본 중 정본으로 꼽히는 임창순본과 비교하여도 생략된 부분이 더 많은 편이다.

또한 다른 한글본 연행록 2종에 비해 주석의 삽입빈도가 현저히 낮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한 전문 필사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의 삽입빈도가 낮은 이유는 한글본 독자층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배려한 필사자의 의도로 파악되며, 전문 필사자의 개입 가능성은 동경대본 『열하기』와 비슷한 내용의 필사기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본고는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규장각에 소장된 김창업의 한글본 연행록 『연행일기』(가람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글본 연행록 연구의 토대를 부분적이거나 보완하고, 전반적인 연행록 연구에 다양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연행록전집(燕行錄全集)』 등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구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여타의 한글본 연행록으로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한글본 연행록의 연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그 동안 실증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증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추론의 근거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후기의 한글번역서 수용양상과 상업적인

출판 가능성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들이 향후에라도 발굴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0. 6. 22.

심사일 2020. 7. 23.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김창업(Kim Chang-eop), 연행일기(Yeonhaeng-ilgi), 한글본 연행록(Korean translation Yeonhaengrok), 규장각(Kyujanggak), 가람본(Garambon), 가재연록(Gajaeyonrok)

Abstracts

A Study of Korean Translation of <Yeonhaeng-ilgi> Possessed by the Kyujanggak

Cho, Yang-won

This paper is based on Kim Chang-eop's Korean translation of <Yeonhaeng-ilgi> as it has been recently discovered in Kyujanggak(奎章閣)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It tends to examin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version <Yeonhaeng-ilgi> and to put light on peculiarities that this translation is carrying. Also, by examining and comparing Kim Chng-eop's <Nogajae yeonhengilgi> and two other existing Hangeul transcription period transcription period of <Yeonhaeng-ilgi> can be roughly estimated.

Garambon <Yeonhaeng-ilgi> except from <Dong Haeng Nok> and <Piji Sancheon> in the first part of the book, this volume is consisted of the records from February 17th until March 30th the same year. In comparison with Chinese version omissions and abbreviations are frequent, and when compared with Korean version, considers as original text in Hangeul, there are many omitted parts.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insertion of annotation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Hangul editions, which indicated possibility that a professional scribe interven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The reason for the low frequency of insertion of annotations I see in the readability and comprehension of the readers of the Korean version.

This paper intensively analyzes Kim Chang-eup's Hangul version of the chronological book <Yeonhaeng-ilgi>(Garambon), which has not been studied in depth until now, and I think it can complement the study of travel literature and offer diversity.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it is included in the <Records of Traveling in Peking(燕行錄全集)>,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the study will be expanded to other Hangul editions that have been neglected by researchers so far.

Also, it is expected that if the study of the Hangul version of the travel literature continue it is possible to reveal the basis of various reasoning that have not been proven until now due to the lack of material. There is a big possibility that materials that reveal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acceptance pattern of Korean tran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 publication will be exhumed in the future.